東洋學 第90輯(2023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唐太宗의 고구려 침공과 水軍*

徐 榮 敎**

▌국문초록 ▐

645년 唐太宗의 전쟁 목적은 평양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安市城에 가로막혀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았지만, 필자는 그 해답을 唐수군에서 찾아보았다.

고구려 침공을 결정한 황제는 사람들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강과 바다를 통해 보급품을 수송하려고 했다. 幽州(북경)에서 遼河 사이의 2천리 구간을 행군해야 하는 황제 직속의 六軍 6만은 해안 길을 선택했다. 河北道의 식량들을 선적한 600척의 배들이 해안을 따라가면서 六軍에 보급을 했다.

645년 5월 2일 唐수군이 卑沙城을 함락시켰다. 이후 그 요새는 唐軍의 군수기지로 활용되었다. 山東 萊州에 집적된 糧米·武器가 卑沙城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고구려의 여러 지역(건안성·요하·평양·압록강)으로 수송이 가능했다.

병력도 그러했다. 5월 唐수군 사령관 張亮은 卑沙城에서 建安城으로 이동했다. 그 요새를 공격하던 張儉의 군대가 遼東城의 南面 공격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수군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수군은 육군을 보조하기도 했다.

한편『資治通鑑』641년 8월 10일 기록에 황제의 고구려 침공전략이 보인다.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遼東을 공격하면 고구려의 다른 여러 城이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이고, 고구려의 병력이 대부분 遼東에 몰리면 唐수군이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직공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황제 자신과 唐육군은 고구려의 병력을 遼東으로 빨아들이는 미끼이자 흉기였다.

645년 6월 21일, 연개소문은 駐蹕山 전투에 평양의 병력을 중심으로 전국각지에서 차출한 15만의 병력을 투입했다. 고구려 수도의 방어가 약해졌다. 황제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23일 唐軍이 고구려의 대군을 격파했다. 그 시점에 唐수군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성을 공격하거나, 대동강에 보급거점을 구축하고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평양으로 항해하던 張文幹 등이 이끄는 唐함대가 대부분 침몰했다. 황제의 향후 작전계획이 어그러졌다. 6월 23일 駐蹕山 전투 직후 고구려가 공황 상태에 빠진 바로 그때 황제의 군대가 평양으로 진군해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612년 해상보급을 맡은 隋수군이 평양에서 궤멸되어 그곳으로 진군하던 隋육군 30만과 연결되지 못했고, 육군이 후퇴는 과정에서 전멸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645년 5월~6월 唐太宗은 고구려에서 遼東城·白巖城·卑沙城·蓋牟城을 함락시켰고, 무엇보다 駐蹕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唐수군의 배들이 전복되면서, 전쟁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다. 645년 11월에 황제는 임무 수행에 실패한 수군 총관 張文幹을 주살했고, 이듬해 3월에 수군 총사령관 張亮을 참수했다.

[주제어] 唐太宗, 駐蹕山, 唐水軍, 卑沙城, 張亮, 張文幹

* 이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과제관리번호: 2021-018).
**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부교수 / syk367@naver.com

ㅣ목 차ㅣ

Ⅰ. 머리말
Ⅱ. 六軍 行軍과 軍糧 水運
Ⅲ. 水軍의 卑沙城 점령과 建安城 견제
Ⅳ. 張文幹 船團의 침몰과 平壤進攻 보류
Ⅴ. 맺음말

Ⅰ. 머리말

645년 唐太宗이 고구려를 침공했다.[1] 세계사적으로 볼 때 唐의 전략과 전술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突厥·契丹·奚·霫·靺鞨 등 유목민 騎兵과 중국인 步兵이 절묘하게 결합 된 唐軍은 세계 최강의 수준이었다.

그 때문에 그 강력한 唐軍을 이끌던 唐太宗이 고구려에 패배한 安市城 전투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2] 그런 가운데 주목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唐수군이 그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글에서 2개의 기존 지적을 염두에 두고 唐수군의 활동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唐太宗의 고구려 침공전략에 대한 C. P. Fitzgerald의 지적이 주목된다. 그에 의하면 군사 천재 李世民은 내륙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지중해의 섬(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 보다 훨씬 海洋力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李世民은 隋煬帝의 고구려 침공 실패의 중요 원인을 隋의 大軍이 북경(涿郡)에서 먼 거리(many hundreds miles)를 육로로 행군하면서 (고구려에 의해) 계획적으로 초토화(淸野)된 만주에서 굶주린 것에서 찾았으며, 고구려로 행군하는 육군에 해상 보급을 한다면 훨씬 작은 병력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다.[3]

다음으로 신형식에 의하면 唐軍의 전략은 육군이 遼東의 諸城을 일제히 공격하여, 고구려의 주력을 遼東城·白巖城 쪽으로 돌려 安市城 일대에 포진케 하고, 그 사이에 수군으로 卑沙城·泊灼城을 거쳐 평양으로 진격하려는 것이 그 첫째 전략이었다고 했다.[4] 唐육군의 침공으로 고구려의 병력이 遼東에 집중되었을 때

---

1) 『舊唐書』 卷199, 東夷 高麗傳

2) 『成宗實錄』 卷253, 成宗 22年(1491) 5月 30日 乙巳 "然唐太宗以英武之主, 擧天下之兵, 將帥如李勣·李靖·薛萬徹·道宗·張亮·薛仁貴, 皆不世出之才, 以此征高句麗, 不啻如千鈞壓鳥卵, 然而困一安市小城, 挫衄而歸, 爲天下後世笑."
『宣祖實錄』 卷122, 宣祖 33年(1600) 2月 20日 甲午 "安市能守, 高麗不亡."
文一平, 「朝鮮人과 國際觀」, 『湖岩全集』 제1권,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金庠基, 「淵蓋蘇文」, 『朝鮮名人傳』 2,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신채호,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1948.
허태용, 「圓嶠 李匡師의 중화의식과 역사인식 一考-「東國樂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0, 한국인물사연구회, 2008, 71~102쪽에서 안시성 전투에 대한 높은 평가와 동경은 조선후기 小中華의 전개 속에서 배태된 것이며, 황제의 부당한 무력에 대항한 안시성주는 (고구려) 군주에 대한 충이라는 유교 윤리를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3) C. P. Fitzgerald, *Son of Heaven-A Biography of Li Shih-Min, founder of the T'ang Dynasty*-,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33, p.189.

4) 신형식,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 『國史館論叢』 2, 國史編纂委員會, 1989(pdf 쪽수 없음).

唐수군이 수도인 평양을 공격하여 허를 찌르겠다는 것이 唐太宗의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료적 근거가 있다. 고구려에 접근하는 唐육군에 해상 보급을 위한 준비 작업 기록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적극적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다.

후자도 사료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고구려를 침공한 隋唐帝國의 군대는 대부분 수륙으로 평양성 공격을 시도했다. 612년 隋육군이 남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수군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을 공격하였으며,[5] 661년에도 契苾何力의 기병이 남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唐將 蘇定方의 수군이 평양성을 포위했다.[6] 667년에도 郭待封의 함대가 대동강 기슭에 상륙한 가운데 唐將 李勣의 육군이 평양 북쪽 200리 까지 남진해왔다.[7] 하지만 정작 645년 唐수군이 평양 부근에 상륙한 어떠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8] 왜 그러했을까.

먼저 고구려로 향하는 唐太宗 휘하의 六軍에 대한 해상 보급에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張亮 수군의 卑沙城 점령 의미와 建安城 견제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평양으로 향하던 唐船團의 침몰이 황제의 고구려 親征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Ⅱ. 六軍의 行軍과 軍糧 水運

643년부터 唐太宗은 고구려 침공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河北과 河南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물이 전쟁에 전용될 터였다.

> 太宗 貞觀17年(643) 이때 요동[고구려]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이보다 먼저 太常卿 韋挺을 河北諸州에 파견하여 軍糧을 징발하여 營州에 쌓아 놓게 하고, 또 太僕少卿 蕭銳에게 령을 내려 河南道 諸州의 양식을 바다로 옮기게 하였다. 18年(644) 8月 蕭銳가 奏稱하여 海中 古大人城(黃縣에서 서쪽으로 23里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 高麗에서 470리에 있으며, 땅에서 甜水가 많고, 山島와 接連한 곳)에 軍糧을 쌓아 두자고 하니 더욱 편리하다고 여기고 조서를 내려 그대로 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河南道에서 米糧을 水陸으로 운반하여 渡海軍糧을 모두 그곳에 저장하였다."[9]

『新唐書』 卷220, 高麗傳 "帝曰……我發卒數萬攻遼東, 諸城必救, 我以舟師自東萊帆海趨平壤, 固易."

5) 『資治通鑑』 卷181, 大業 8年(612) 6月 己未(11일) "右翊衛大將軍來護兒帥江・淮水軍, 舳艫數百裏, 浮海先進, 入自浿水, 去平壤六十裏, 與高麗相遇, 進擊, 大破之."

6) 『資治通鑑』 卷200, 龍朔 元年(661) 秋7月 甲戌(11일) "蘇定方破高麗於浿江, 屢戰皆捷, 遂圍平壤城."

7) 『三國史記』 卷6, 文武王 7年(667) 10月 2日 "英公(李勣)到平壤城北二百里."
『資治通鑑』 卷201, 唐高宗 乾封 2年(667) 9월 辛未(14일), "郭待封以水軍自別道趣平壤, 勣遣別將馮師本載糧仗以資之.……勣乃更遣糧仗赴之."

8) 이민수,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158~160쪽에서 641년 唐太宗의 수군 평양직공 계획이 645년에 변경되었다고 했다.

9) 『冊府元龜』 卷497, 邦計部・河渠 "太宗貞觀十七年, 時征遼東, 先遣太常卿韋挺於河北諸州徵軍糧, 貯於營州. 又令太僕少卿蕭銳於河南道諸州, 轉糧入海至. 十八年八月, 銳奏稱海中古大人城 : 西去黃縣二十三里, 北至高麗四百七十里, 地多甜水, 山島接連,

643년 황제는 河北의 여러 州의 식량을 거두어 (수로를 통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한 營州에 쌓아놓게 하였고, 河南道의 곡물을 山東半島의 보관시설로 운반하게 했다. 644년 8월에 가서 山東의 黃縣[10]에서 서쪽으로 23리에 있는 古大人城에 河南道에서 수취한 軍糧이 집적되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곧장 바다 건너 고구려로 운반될 터였다.

山東 萊州가 바다를 통해 고구려로 향하는 보급의 거점이라면, 幽州는 營州를 경유하여 고구려 국경지대로 향하는 육로 행군 보급의 창구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舊唐書』 卷77, 韋挺傳을 보면, 幽州에서 遼水까지 2천리 구간의 보급품 운송에 황제는 배를 이용하려 했다.[11] 배의 운반 능력이 말이 끄는 짐수레보다 훨씬 뛰어난데다 수로 운송에는 말 사료 같은 추가적인 요구가 없다.[12]

그것은 隋代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隋는 고구려 침공 때 보급품을 대운하(永濟渠)를 통해 涿郡(북경)에 집중시켰다.[13] 하지만 그곳은 수로의 종점이었다. 징발된 민부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 곡물을 싣고 涿郡에서 瀘河(요령성 錦州)와 懷遠(요령성 遼中)까지 육로로 운반했다. 민부들은 대부분 귀환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림 1〉 河北道와 河南道

북동쪽 幽州(北京)와 營州(고구려접경) 위치

또한 鹿車夫 60만을 동원하여 두 사람이 쌀 3석을 밀고 가게 하였으나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양식(餱糧)을 채우지 못하였다. 瀘河鎭・懷遠鎭에 도착하면 수송한 식량이 급격히 줄어 있었다. 가는 도중에 식량을 거

貯納軍糧此, 爲尤便詔從之. 於是, 自河南道運轉米糧, 水陸相繼, 渡海軍糧皆貯此."

10) 登州 四縣(牟平縣・文登縣・蓬萊縣・黃縣)의 하나

11) 太宗은 貞觀 元年(626)에 遼西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懷遠縣을 정리했다. 『舊唐書』 卷39, 志第19 地理2 "貞觀元年, 廢都督府, 仍省懷遠縣."

12) Martin van Creveld, *Supplying War:* Logistics from Wallenstein to Pat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마르틴 반 크레펠트(저), 우보형(역),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31쪽.

13) 『資治通鑑』 卷181, 大業 7년(611) 2월~5월 조.

의 먹어버렸고, 많은 사람이 벌을 받을까 봐 도주하였다.

도망간 백성들은 모여서 도적이 되었다. 山東 鄒平縣 출신 王薄은 長白山에 무리를 모아서 濟(제남시) 교외를 약탈하였고, 遼東에 가서 헛되이 죽지 말자는 노래(無向遼東浪死歌)를 지어 서로의 느낌을 권고하니 병역기피자들이 대부분 그에 가서 합류했다.[14]

고구려 침공을 위한 과도한 인력징발이 농민반란의 씨앗을 뿌렸고, 병사 34만이 행방불명된 敗戰은 반란의 규모를 거대하게 키워 隋를 멸망으로 몰고 갔다. 隋末의 동란 속에서 청춘을 보낸 唐太宗은 그 실패를 알고 있었다.

643년 황제는 韋挺을 運糧使로 임명하였다.[15] 여기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있다.

> 貞觀 19年(645), 장차 遼東에 일(전쟁)이 있어, 사람을 뽑아 군량을 운반하려 했다. 周又가 상주하여 挺이 才堪하다하여 粗使로 추천하니 太宗이 따랐다. 挺의 아버지가 隋의 營州總管으로 高麗를 경략했는데 그 遺文이 있다고 아뢰니 太宗이 크게 기뻐하여, 挺에게 이러기를 [幽州이북의 遼水 2천 여리는 州縣이 없다. 軍이 거기로 갈 때 資糧을 얻을 수 없어 卿을 此使(運糧使)로 삼았으니, 軍用을 얻는데 고달프지 않게 한다면 그 功이 적지 않을 것이다.] 人部侍郎 崔仁師를 (挺의) 副使로 삼고, 자신이 택한 文武官 4品 10인을 子使 삼아, 幽·易·平 3州의 騎兵 驍勇 200인으로서 挺을 따르게 하였다. 황제가 河北諸州에 詔를 내려 모두 挺의 節度를 따르게 했고, 일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주었다(便宜行事). 그리고 황제가 親히 解貂裘와 中廐馬 2匹을 내려주어 주었다. 挺이 幽州에 이르러 燕州司馬인 王安德에게 물길(渠) 이 통하는지 여부를(通塞) 살펴보게 하였다.
>
> 이보다 앞서 幽州 창고(庫)에서 물자를 내어, 市에서 나무(木)를 사서 배(船)를 만들어 米를 운반하게 하였다. 桑乾河에서 아래로 내려와 盧思台에 이르러, 幽州를 떠나 八百里에서 王安德을 만나 돌아와 그의 말을 들으니, 「여기서부터 漕渠가 막혀있습니다.」라고 하였다. 挺은 北方의 寒雪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이 말라 돌아오지도 못하여, 米를 내려 台의 側에 쌓아두고 새해가 열려 봄이 시작되어 일이 잘 풀리어 轉運하면 大兵이 이르러도 軍糧이 필시 足할 것이라 했다.
>
> 이를 듣고 太宗이 不悅하게 여겨 挺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兵尙이 拙速하여, 지체되는 것은 不貴하다. 朕이 19年(645) 봄에 군대를 크게 일으킬 터인데 지금 말을 들어보면 20年(646)에 가서야 運漕가 가능하여 심히 無謂(쓸모가 없다)하다.」 곧 繁畤令 韋懷質로 하여금 挺이 있는 곳에 파견하여 군량을 채비하게 하고 渠水를 살펴보게 하였다. 懷質이 돌아와 漕渠를 보고 아뢰었다. (挺이) 문득 工匠을 모아 배를 만들고(造船)하고, 運米를 即下하여, 盧思台에 이르러서 물길이 막힌(渠閉) 것을 알았고, 나아가고자 했으나 갈 수 없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물이 없어, 군량을 平夷之區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또 挺은 幽州에 있는데 날마다. 飮會를 가지니 實이 어그러짐이 드러났습니다. 陛下가 明年

14) 『資治通鑑』 卷181, 大業 7年(611) 12月 "帝自去歲謀討高麗, 詔山東置府, 令養馬以供軍役. 又發民夫運米, 積於瀘河·懷遠二鎭, 車牛往者皆不返, 士卒死亡過半, 耕稼失時, 田疇多荒. 加之饑饉, 穀價踴貴, 東北邊尤甚, 鬥米直數百錢. 所運米或粗惡, 令民糴而償之. 又發鹿車夫六十餘萬, 二人共推米三石, 道途險遠, 不足充餱糧, 至鎭, 無可輸, 皆懼罪亡命. 重以官吏貪殘, 因緣侵漁, 百姓困窮, 財力俱竭, 安居則不勝凍餒, 死期交急, 剽掠則猶得延生, 於是始相聚爲群盜. 鄒平民王薄擁眾據長白山, 剽掠齊·濟之郊, 自稱知世郎, 言事可知矣: 又作《無向遼東浪死歌》, 以相感勸, 避征役者多往歸之."
이정빈,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무엇을 바꾸었나?」, 『역사비평』 126, 역사비평사, 2019, 73~79쪽.

15) 『冊府元龜』 卷497, 邦計部·河渠 "太宗貞觀十七年(643)時征遼東 先遣太常卿韋挺於河北諸州徵軍糧 貯於營州."

에 出師하는데 신하의 기량이 이러하오니, 聖策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太宗이 大怒하여, 將作少監인 李道裕에게 일을 대신하여 맡게 하고, 治書侍御史 唐臨馳에게 영을 내려 挺을 형틀에 묶어 洛陽으로 소환하게 하여, 논의하여 除名하고, 영을 내려 白衣散從하게 하였다.[16]

河北諸州에서 수취한 군량을 배에 실어 幽州에서 遼水까지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韋挺은 먼저 幽州 창고(庫)에서 화폐용 물자를 꺼내 시장에서 목재를 사서 배(船 600척)를 만들었다. 시장에서 가공된 목재를 사는 것이 시간상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큰 배를 한 척 만드는데 목재 비용을 제외하고 工匠의 인건비에만 비단 2,300필이 소요되었다.[17]

내륙에서 수취한 米를 바다로 운반하는데 桑乾河을 이용했다. 그 강은 山西省에서 발원하여 河北으로 들어와 北京을 지나 天津에서 발해만으로 흐르는 현재의 永定河를 말한다.[18] 어느 순간 韋挺의 運糧船은 어려움을 만났다. 강을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다가 盧思台에서 수로 상태를 살피고 돌아온 王安德을 만났다.

그가 이러기를 "여기서부터 漕渠가 막혀있습니다." 韋挺은 北方의 寒雪 몰아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수로에 물이 없어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그는 盧思台 옆에 米를 내려 집적하고 겨울이 지나고 새해 봄에 運糧을 하려 했다. 수로가 열리면 大兵을 충분히 먹일 軍糧을 운송할 수 있다고 여겼다.[19]

황제가 사람을 현장에 보내 조사를 하게 했다. 감찰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韋挺은 幽州로 부임하자 곧바로 市木을 구입하고 조선 기술자들을 모아 선박을 제조하였고, 河北의 여러 州에서 수취한 곡물을 배 **600척**에 선적하여 桑乾河를 타고 내려가다가 盧思台에 이르러서야 물길이 막힌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현재 군량을 배에서 내려 平夷之區에 쌓아 두었습니다. 지금 韋挺은 幽州에서 날마다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645년 정월 진노한 황제는 韋挺을 형틀에 묶어 洛陽으로 송치하게 했다.[20] 將作少監 李道裕가 그 일을 대신 맡았다.

645년 4월 10일에 황제가 幽州에서 고구려로 출발하면서 軍中資糧·器械·簿書(장부)를 岑文本에게 위임하였다. 그가 과로로 사망하면서 기록이 남았다.

(645년 4月 10일) "(당태종의)車駕가 幽州를 출발하면서 황상이 군수물자와 양식·器械와 簿書(장부 정리)를 岑文本에게 모두 위임하였는데, 文本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을 다하면서 몸소 생각하고 분배하여 주판과 붓을 손에 놓지 아니하니 정신이 소모하여 다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자못 보통 때와 달랐다. 황상이 이를 보고 염려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文本이 나와 같이 나왔는데, 아마도 같이 돌아가지 못하겠다. 이날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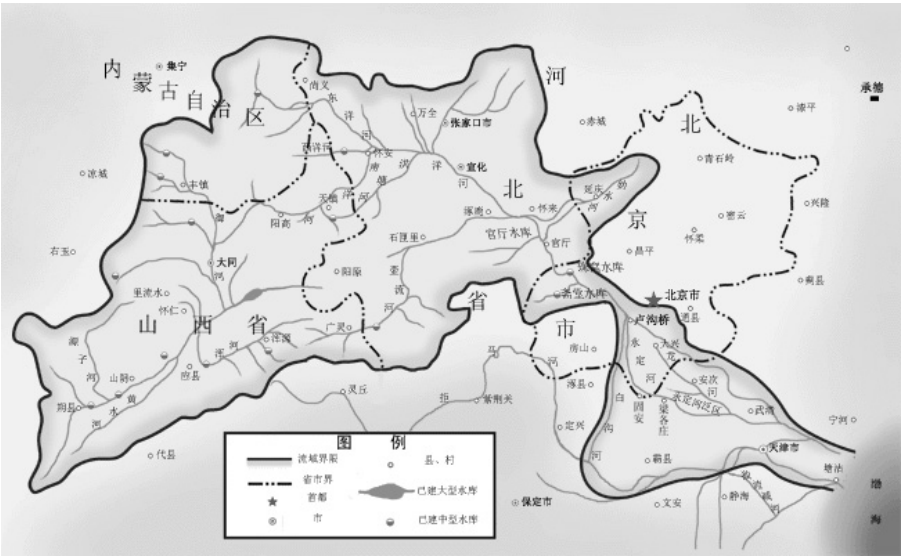
16) 『舊唐書』 卷77, 列傳27 韋挺傳

17) 『資治通鑑』 卷199, 貞觀 22年(648) 9月 壬寅(21일) "大船一艘, 庸絹二千二百三十六匹."

18) 『讀史方輿紀要』 卷10, 北直1 其大川 則有桑乾河 "桑乾河, 源出山西馬邑縣西北十五里, 洪濤山亦名累頭山, 水出焉, 即桑乾河上源也."

19) 이미 金나라 때(1170) 桑乾河의 수로가 높고 물이 탁하여 배가 다닐 수 없었다. 『讀史方輿紀要』 卷10, 北直1 其大川, 桑乾河 "乾道六年……既而以地峻水濁, 不堪舟楫, 漕渠竟不成."
『大清一統志』 順天府2 山川 조에 의하면 盧思台는 宛平縣(北京 서남) 西쪽 30里에 위치했다고도 한다. "盧師山, 在宛平縣西三十里, 相傳隋末有神僧盧師.…"

20)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正月 "韋挺坐不先行視漕渠, **運米六百餘艘至**盧思台側, 淺塞不能進, 械送洛陽."



〈그림 2〉 桑乾河(永定河) 유역

"文本은 주판과 붓을 놓지 않았다(籌·筆不去手)"라고 한다. 그는 수학적 두뇌를 필요로 하는 장부 업무를 수행했다. 岑文本의 일 가운데 幽州에서 營州 해안으로의 도항운수(渡航運輸)의 계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軍糧·馬糧·화살·攻城機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를 할당하고 겸하여 고구려와 인접한 營州 해안에 다녀온 빈 배를 다시 幽州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다시 짐을 실어 보내는 것이다. 빈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滿船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선과 空船의 속도, 짐을 싣고 내리는 시간, 戰艦과 화물선의 비율 등 복잡한 계산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황제가 고구려로 향할 때 내륙인 柳城(營州 치소, 朝陽)을 경유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親征第2를 보자.

> (4月) 丁未(10일)에 (황제의) 輿駕가 幽州를 출발하였다. 壬子(15일), 李勣이 高麗의 蓋牟城을 공격하였다. 丁巳(20일)에 太宗이 北平을 지나 바다를 바라보았다(澄臨海).[22]

645년 4월 10일 幽州를 출발한 황제는 20일 현 河北省 盧龍縣에 위치한 北平을 지나 바다에 닿았다. 『通典』 卷178, 北平郡 조를 보자.

---

21) 『資治通鑑』 卷197, 貞觀 19年(645) 4月 丁未(10일) "車駕發幽州. 上悉以軍中資糧·器械·簿書委岑文本, 文本夙夜勤力, 躬自料配, 籌·筆不去手, 精神耗竭, 言辭舉措, 頗異平日. 上見而憂之, 謂左右曰, 文本與我同行, 恐不與我同返. 是日, 遇暴疾而薨."

22)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親征第2 貞觀 19年[645] 4月 丁未 "輿駕發幽州. 壬子, 李勣攻高麗之蓋牟城. 丁巳, 太宗次北平, 澄臨海."

"(北平) 東으로 柳城郡에 이르는데 7百里이고, (北平) 南으로 바다에 이르는데 1百里 거리이다."[23]

幽州에서 北平에 이르면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동쪽으로 7백 리를 가면 柳城이고, 남쪽으로 1백 리를 가면 바다에 이른다. 황제와 휘하의 六軍은 동쪽 柳城으로 가지 않고, 北平에서 남쪽으로 가서 바다에 도착했다. 이는 황제가 해안선 쪽으로 행군의 방향을 잡은 것을 말한다.

그곳은 秦皇島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지명도 秦나라 始皇帝가 이곳을 순시했다고 해서 붙여진 곳으로 유서가 깊으며, 현재 여기에 明代에 만들어진 山海關이 있다. 만일 해안에 도착한 황제가 柳城으로 행군하려면 다시 북쪽으로 백리를 올라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7백리를 가야한다. 2백리를 더 행군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황제의 六軍은 무려 6만에 달했고,[24] 그들의 보급 수요는 엄청났다. 만일 幽州에서 출발한 六軍이 내륙인 柳城을 경유했다면[25] 앞서 3월 24일에 그곳을 떠나 고구려로 향한 李勣의 군단과 행군로(幽州→柳城 구간)가 겹쳐 보급에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전대가 지나간 자리에 보통 남아 있는 것이 없다.

柳城에서 북도(燕郡→通定鎭→玄免城)로 행군한 李勣軍도 적지 않은 기병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본거지인 柳城에서 남도(燕郡→汝羅守捉→遼隊縣)를 이용하여 建安城 앞에 도착한 張儉의 營州都督府 군대 경우 기병군단이었다.[26] 六軍·李勣軍·張儉軍이 각기 다른 길을 간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보급이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 크레펠트(Martin van Creveld)에 의하면 말(馬)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 시키는 것은 병사들을 급양하는 것보다 어려웠다고 한다. 1에이커(acre, 4,050 제곱미터)의 마초는 50필을 먹일 수 있다. 4만 필의 말을 먹이려면 1일당 800에이커의 마초가 필요했다. 길이 100마일, 폭 10마일의 길쭉한 지형을 10일 걸려서 행군한다면, 말들은 8,000에이커의 무성하게 자란 마초를 먹어 치운다. 대규모 기병을 보유한 군대의 경우 이러한 마초의 속박이 行軍路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200톤의 밀가루와 600톤의 마초를 육로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600대 이상의 짐수레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경우 도중에 마부와 말(1200필 이상 추산)이 엄청난 식량·사료를 먹어 치우며, 도로가 정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같은 무게(800톤)의 양을 물길로 운반하는데 배 9척만 있으면 충분하며, 배는 사료도 소모하지 않는다. 보급에 있어 수로의 효율성을 넘어서는 수단은 없다고 한다.[27]

---

23) 『通典』 卷178, 北平郡 "東至柳城郡七百里南至海一百里……"

24)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親征2 "(貞觀19年[645] 5월) 丁丑(10일), 車駕渡遼, 撤橋梁, 以堅士卒之心. 甲士六萬營於馬首山."

25) 王綿厚·李健才,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1990, 141쪽(李成制, 「高句麗와 遼西橫斷路」, 『韓國史硏究』 178, 한국사연구회, 2017, 43쪽 재인용)에서 營州(柳城 : 朝陽)에서 燕郡城에 이르고 다시 汝羅守捉을 지나 遼水를 건너 安東都護府에 이르는 경로(營州入安東道)가 645년 唐太宗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이용했던 길이었다고 했다. 王綿厚 등은 황제가 내륙으로 진군했다고 보았다.

26)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親征2 丙戌 "先命行軍大總管英國公勣, 行軍總管張儉等, 率領驍銳, 元戎啓行. **北狄·西戎之酋**, 咸爲將帥. **奚·霫·奚·霫·契丹之旅**, 皆充甲卒……."
『全唐文』 卷7, 太宗皇帝 命張儉等征高麗詔 "……宜令營州都督張儉·守左宗衛率高履行等, 率幽·營二都督府兵馬, 及**契丹·奚·靺鞨**, 往遼東問罪."
『唐大詔令集』 卷130, 蕃夷-討伐-親征高麗詔 "**契丹蕃長於句折, 奚蕃長蘇支, 燕州刺史李元正等**,……"

해안에 다가간 황제의 六軍이 수로보급의 용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六軍의 행군 소요 시간을 보자. 645년 4월 10일에 六軍이 幽州(북경 부근)를 출발했고, 20일 北平(遵化市)에서 1백里를 행군하여 바다(山海關)에 닿았다. 5월 3일에 遼澤의 서편(懷遠鎭), 5일에 遼澤의 동편, 10일에 遼水를 건너 고구려의 遼東城(遼陽市) 앞 馬首山에 진지를 꾸렸다.[28]

幽州에서 山海關까지 10일이나 걸렸다.[29] 그런데 山海關에서 遼澤의 서편까지 1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전자보다 후자 구간이 훨씬 장거리이다. 후자의 짧은 소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運糧船과 함께 수륙병진을 하던 六軍은 山海關에서부터 遼澤의 서편까지 무거운 짐을 휴대하지 않고 행군을 한 것으로 보인다.

山海關에서 해안선을 따라 행군한 황제 일행은 선박으로부터 지속적인 보급을 받았거나 아니면 선박이 해안의 어느 지점(보급창)에 미리 옮겨 놓은 보급품을 소비했을 것이다. 山海關, 營州의 해안로, 錦州 남쪽, 遼澤의 서편 등의 지점들이 보급 장소로 추측된다. 隋代 瀘河鎭(錦州市)·懷遠鎭(遼河의 서편)의 창고에 고구려 전선으로 향하는 군대에 지급될 軍資가 보관되었다.[30]

황제와 그의 군대의 행군코스는 이러했다고 생각된다. 幽州(北京)→北平(遵化市)→山海關(秦皇島市)→營州의 해안 길→瀘河鎭(錦州市)→懷遠鎭(遼澤의 서편)→遼澤의 동편→遼東城.

Ⅲ. 水軍의 卑沙城 점령과 建安城 견제

앞서 六軍에 대한 행군 보급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萊州에서 발진한 수군의 활동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전자는 唐太宗이 처음 시도한 것이었지만 후자는 역사 이래로 반복되던 것이었다.

644년 7월에 황제는 강남 지역에서 배를 만들게 했다. 고구려로 군량과 병력을 실어 나르고 상륙전을 해야 했다.

> (貞觀) 18年(644) 7月, 太宗이……將作大匠 閻立德, 括州刺史 趙元楷, 宋州刺史 王波利에게 칙을 내려 洪·饒·江 等의 州에 보내서 배(船)와 전함(艦) 400艘을 만들게 하여, 군량을 선적하여 운반하고, 바다에서 싸울 수 있게 하였다.[31]

---

27) 마르틴 반 크레펠트(저), 우보영(역), 앞의 책, 2010, 31쪽, 65쪽, 70쪽, 73쪽, 91쪽 참조.

28) 『冊府元龜』 卷113, 帝王部·巡幸2 "(貞觀) 十九年(645)……四月丁未(10일)發幽州 丁巳(20일)次北平 登臨海戍降望大壑. 五月庚午(3일)次遼澤, 壬申(5일)渡澤, 丁丑(10일)渡遼, 六月丁未發遼東,……"
『資治通鑑』 卷197, 貞觀 19年(645) 4月~5月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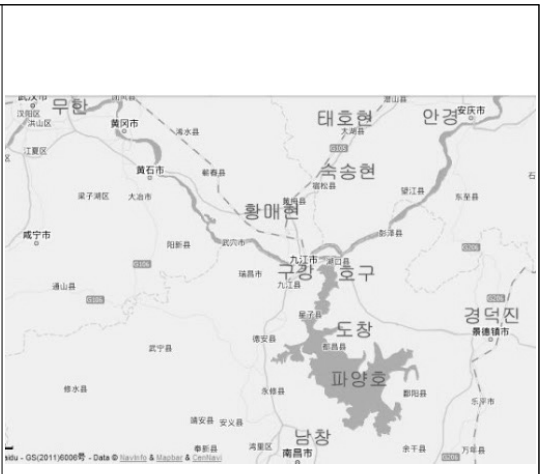
29) 황제의 직속인 六軍에 대한 보급은 양호했던 것 같다. 황제가 幽州를 떠나기에 앞서 城 남쪽에서 六軍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親征2 貞觀 19년(645) 4月 癸卯 "於幽州城南大饗六軍."

30) 이정빈,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 변경지대와 그 변화-요서 고구려의 遲와 수의 鎭·戍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115쪽에서 612~614년 懷遠鎭과 潞河鎭에 대규모 군수보급기지가 존재 했다고 했다. 앞글 123쪽에서 612년 遼東城 공격을 현지에서 독려하던 隋煬帝가 현 錦州市 부근의 臨海頓(瀘河鎭)으로 이동했다고 보았다.

31)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征討第4 "(貞觀)十八年七月, 太宗,……於是, 敕將作大匠閻立德, 括州刺史趙元楷, 宋州刺史王波

將作大匠인 閻立德과 括州刺史인 趙元楷 그리고 宋州刺史인 王波利가 洪州(강서성 남창시)·饒州(강서성 파양현)·江州(강서성 구강시)에 가서 수송선·전함 400척을 건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江西省의 여러 조선소에서 제작된 배들은 揚子江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 수군 기지인 山東 萊州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32]

〈그림 3〉 洪·饒·江 等의 州가 소재한 江西省



洪州(남창), 饒州(파양), 江州(구강) 위치

644년 11월 황제가 長安에서 洛陽으로 이동하여 全軍에 진군 명령을 했다.

> (644년) 11월 壬寅일, (황제의) 車駕가 洛陽宮에 도착하였다. 庚子일 (황제가) 명하여 太子詹事·英國公 李勣을 遼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柳城(營州의 치소)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禮部尙書·江夏郡王 道宗을 그 副로 삼았다.
>
> 刑部尙書·鄖國公 張亮을 平壤道行軍總管으로 삼아 舟師로서 萊州에서 출발하게 하고, 左領軍 常何·瀘州都督 左難當을 그 副로 삼았다. 天下의 甲士를 뽑고, 병력 10만을 召募하여, 함께 平壤으로 향하게 하여서 高麗를 정벌하게 했다.[33]

위의 기록은 고구려 침공군 편성의 뼈대이다. 육군 사령관은 李勣이고, 수군 사령관은 張亮이다. 전국에서 甲士가 선발되었고, 병력 10만을 모집하였다. 수군에는 帥江·淮·嶺·硤에서 모집한 병사 4만과 長安·洛陽에서 소모한 士 3천, 그리고 戰艦 500척이 배당되었다.[34]

利, 往洪饒江等州造船艦四百艘, 可以載軍糧, 泛海攻戰者."

32) 『資治通鑑』 卷199, 貞觀 22年(648) 7月 "遣右領左右府長史強偉於劍南道伐木造舟艦, 大者或長百尺, 其廣半之. 別遣使行水道, 自巫峽抵江·揚, 趣萊州."

33) 『舊唐書』 卷3, 太宗本紀下 "(貞觀十八年[644]) 十一月壬寅, 車駕至洛陽宮. 庚子, 命太子詹事·英國公李勣爲遼東道行軍總管, 出柳城, 禮部尙書·江夏郡王道宗副之, 刑部尙書·鄖國公張亮爲平壤道行軍總管, 以舟師出萊州, 左領軍常何·瀘州都督左難當副之. 發天下甲士, 召募十萬, 並趣平壤, 以伐高麗."

군항인 萊州에 선박 · 병력 · 물자가 모여들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보급창고와 관련 시설이 신축 또는 확장되었을 것이다. 645년 초 항구에는 수많은 배의 돛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45년 4월 26일 萊州를 출발한 張亮 휘하의 수군이 고구려 卑沙城 현지에 상륙하여 攻城에 들어갔다. 5월 2일 張亮의 亞將인 程名振이 卑沙城을 함락시켰다.[35] 천혜의 요새로 요충지였던 卑沙城이 떨어진 것은 고구려에 결정적인 타격이었다.[36]

卑沙城 주변의 항만들은 고구려 땅에서 唐軍의 중요한 군수기지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山東 古大人城에 집적된 糧米 · 武器가 선적되어 卑沙城으로 옮겨졌을 것이고, 卑沙城에서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의 어느 곳(건안성 · 요하 · 평양 · 압록강)으로도 운반할 수 있었다.[37]

보급품은 물론이고 병력도 그러했다. 卑沙城이 함락된 날 張亮은 總管 丘孝忠 等이 이끄는 船團을 별도로 출진시켜 압록강에서 시위(曜兵)하게 하였다.[38] 그들이 상륙을 감행했는지의 여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하지만 Fitzgerald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압록강으로 접근한 唐수군은 상륙을 하여 오늘날 의주를 점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곳에서 멀지 않은 평양이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황제가 예견한 대로 唐함대의 상륙작전은 많은 고구려군을 평양에 묶어놓아 전력을 遼東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李勣과 李道宗의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 遼河를 건너 開牛(蓋牟城)를 점령하고, 남쪽으로 행군하여 남만주의 최대 도시 遼陽(遼東城)을 포위(점령)할 수 있었다고 한다.[39]

한편 張亮은 卑沙城에서 현재 遼河의 江口에 가까운 建安城으로 주둔지를 옮겼다.

> (貞觀) 19年(645) (태종이) 명을 내려 刑部尚書 張亮 平壤道行軍大摠管 삼고 領將 常何 등이 江淮嶺硤勁의 卒 4만을 통솔하여 戰船 500艘을 바다에 뛰어 萊州에서 平壤으로 향하게 하였고, 또 特進英國公李勣을 遼東道行軍大摠管으로 삼고 禮部尚書江夏王道宗을 그 副로 삼아 領將軍 張仕貴 등과 步騎 6萬을 통솔하여 遼東으로 가서 兩軍이 合勢하게 하였다. 太宗이 六軍을 친히 이끌고 가서 (요동성 앞에서)회합한 以後 張亮이 高麗와 建安城 아래서 再戰하여 모두 격파했다.[40]

建安城 아래서 再戰하였다는 것은 성문을 열고 나온 고구려 군대와 싸웠다는 것이고, 2번의 전투가 벌어

---

34) 『資治通鑑』 卷197, 貞觀 18年(644) 11月 甲午(24일) "以刑部尚書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 帥江 · 淮 · 嶺 · 硤兵四萬, 長安 · 洛陽募士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趨平壤."

35)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 親征0第2 "五月乙巳, 張亮亞將程名振拔卑沙城,……"

36) 신형식, 앞의 논문, 1989.

37)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91쪽에서 당의 수군인 장량의 군대가 요동반도 남단에 있는 비사성을 함락시켜 해로를 통한 군량 등 군수물자 보급이 용이해 졌다고 했다.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74~78쪽에서 수당전쟁에서 운송의 효율성이 높은 수로(산동-비사-압록강-대동강)가 활용되었다고 했다.

38) 『資治通鑑』 卷197, 貞觀 19年(645) 4月 癸亥(26일) "張亮帥舟師自東萊渡海, 襲卑沙城." 5月 己巳(2일) "拔之, 獲男女八千口. 分遣總管丘孝忠等曜兵於鴨綠水."

39) C. P. Fitzgerald, *'op. cit.'*, 1933, pp.192-193.

40) 『冊府元龜』 卷135, 帝王部 · 好邊功 "(貞觀)十九年, 命刑部尚書張亮, 爲平壤道行軍大摠管, 領將常何等, 率江淮嶺硤勁卒四方, 戰船五百艘, 自萊州汎海趨平壤. 又以特進英國公李勣, 爲遼東道行軍大摠管 禮部尚書江夏王道宗爲副, 領將軍張仕貴等, 率步騎六萬, 趨遼東兩軍合勢. 太宗親御六軍以會之後, 張亮與高麗再戰於建安城下皆破之."

졌다는 의미이다. 그 시점은 遼澤을 통과한 황제가 遼東城 앞에 도착하여 李勣·道宗과 회합한 5월 丁丑(10일) 직후로 보인다.[41] 水軍을 이끌던 張亮이 왜 建安城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가?

> (5월)"丙戌(19일)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먼저 命하기를 行營大摠管英國公(李)勣·行軍總管**張儉 등은** 정예를 거느리고 최고 사령관으로 앞장서 啟行하여, 北狄과 西戎의 추장은 모두 장수로 삼고, 奚·霫·契丹의 무리는 모두 甲卒로 채우고, 비휴(貔) 같이 萬計한 말(馬)을 (타고) 달려온 많은 무리들은 모두 遼東之城(앞)에 모여, 그 南面을 공격했다."[42]

遼東城을 함락시킨 이틀 후인 645년 5월 丙戌(19일)에 唐太宗이 조서를 내렸는데 장군들의 공격 지점이 나온다. 여기서 4월 5일부터 建安城을 공략했던 張儉과 그의 병력이[43] 5월에 遼東城의 南面 공격에 동원된 모습이 포착된다. 張亮과 그의 水軍은 卑沙城에서 배를 타고 建安城 앞에 상륙하여, 張儉의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다.

『舊唐書』高麗傳과『資治通鑑』을 보면 5월 (8일)에 황제가 遼澤 동쪽을 지나고 있던 그 시점에 國內城과 新城의 고구려 步騎 4萬이 遼東城을 구원하러 왔다고 한다.[44] 그런데 遼東城에서 가까운 建安城의 병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建安城이 張亮軍의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45] 수군이 보급품뿐만 아니라 병력을 실어 보내 육군을 보조하는 임무도 수행했던 것이다.

> 太宗이 장차 高麗를 정벌하려고 하자, 亮이 자주 諫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기를 請하였다.** 亮으로서 滄海道行軍大總管을 삼아, 舟師를 거느리고 東萊에서 바다를 건너, 沙卑(卑沙)城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男女 數千口를 포획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建安城 아래에 주둔하였다.[46]

위의『舊唐書』張亮傳을 보면 張亮의 직책이 平壤道行軍大總管에서[47] 滄海道行軍大總管으로 변경되어 있다. 그가 卑沙城에서 평양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建安城으로 이동한 것과 이는 무관하지 않다.

645년 5월 17일 唐軍이 遼東城을 함락시켜 고구려에서 거점을 확보했다. 여기서 4만의 사람을 생포하고 糧

---

41)『資治通鑑』卷197, 貞觀 19年(645) 5月 丁丑(10일) "車駕渡遼水, 撤橋, 以堅士卒之心, 軍於馬首山, 勞賜江夏王道宗……"

42)『冊府元龜』卷117, 帝王部·親征 第2 貞觀 19年(645) 5月 丙戌 "詔曰… 先命, 行營大摠管英國公(李)勣, 行軍總管**張儉**等, 率領驍銳元戎啟行, 北狄酋戎之酋咸爲將帥, 奚霫契丹之旅, 皆充甲卒, 如貔萬計, 躍馬千群, 摠萃遼東之城, 攻其南面."

43)『資治通鑑』卷198, 貞觀 19年(645) 夏4月 壬寅(5일) "營州都督張儉將胡兵爲前鋒, 進渡遼水, 趨建安城, 破高麗兵, 斬首數千級."

44)『舊唐書』卷199, 高麗傳 "五月, 張亮副將程名振攻沙卑城, 拔之, 虜其男女八千口. 是日, 李勣進軍於遼東城. 帝次遼澤,……國內及新城步騎四萬來援遼東……"
『資治通鑑』卷197, 貞觀 19年(645) 5月 乙亥(8일) "乙亥, 高麗步騎四萬救遼東, 江夏王道宗將四千騎逆擊之."

45) 노태돈, 앞의 책, 2009, 87쪽에서 남으로부터 요동성 지원은 장검이 이끈 당군이 건안성 등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그에 대비하느라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했다.

46)『舊唐書』卷69, 張亮傳 "太宗將伐高麗, 亮頻諫不納, 因自請行. 以亮為滄海道行軍大總管, 管率舟師. 自東萊渡海, 襲沙卑城, 破之, 俘男女數千口. 進兵頓於建安城下."

47)『新唐書』卷220, 高麗傳 "帝幸洛陽, 乃以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

穀 50만 석을 획득하였다. 5월 28일 白巖城으로 진군한 唐軍은 6월 1일에 그 요새를 점령했으며, 6월 23일 安市城 앞 駐蹕山에서 고구려의 중앙군 15만을 대파했다. 그간 張亮의 수군은 고구려의 대군을 建安城에 묶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 唐의 본영으로 물자수송도 가능케 하여 육군의 승리에 일정 역할을 했다.[48]

하지만 얼마 후 安市城 전투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唐의 수뇌부는 대책을 논의했다.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9月 壬申(7일) 조를 보자.

① 처음(初)…(6월 20일) 李世勣이 安市城을 공격하였다.…(중략)…굳게 지키니 떨어지지 않았다.

② 高延壽와 高惠眞이 황상(당태종)에게 청하여 말하였다.…(중략)…烏骨城의 褥薩은 늙어서 굳게 지킬 수 없습니다. 군사를 옮겨서 그곳에 다가가면 아침에 가서 저녁에 이길 것입니다. 나머지 길에 있는 작은 성들은 반드시 풍문만 듣고 달아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자제와 양식을 거두어 북을 치고 나아가면 평양은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③ 신하들도 역시 말하였다. "張亮의 군사가 沙城(비사성)에 있으니 그를 부르면 이틀을 자면 도착할 수 있어서 고려가 두려워하는 것을 올라타서 힘을 합하여 烏骨城을 뽑고 鴨綠水를 건너서 곧바로 (고구려의 수도) 平壤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이번 거사에 있습니다."

④ 황상이 이를 좇으려고 하는데 홀로 長孫無忌가 말하였다.
"천자가 친히 정벌을 나왔으니, 제장이 온 경우와 달라서 위험을 타고서 요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금 建安城과 新城에 있는 오랑케(고구려군) 무리가 10만인데 만약에 (우리 唐軍이) 烏骨城으로 향한다면 모두가 우리의 뒤를 밟아 올 것이니 먼저 安市城을 격파하고 建安城을 빼앗은 다음에 멀리까지 달려가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것이 萬全之策입니다. 황상이 마침내 중지하였다."[49]

위의 기록이 모두 645년 9월 7일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初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시점을 잡아보면 ①에서 "李世勣이 安市城을 공격하였다."라고 한 기록은 6월 20일이다.[50] 그리고 ③에서 보이는 張亮의 '在卑沙城' 기록은 『冊府元龜』 卷989, 外臣部・備御第2 貞觀 19년(645) 7월 조에서 확인된다.[51]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년(645) 7월 戊子(22일) 조에서 "張亮軍이 建安城 아래를 지나갔다."[52]라

48) 노태돈, 앞의 책, 2009, 100~101쪽에서 장량이 이끄는 수군이 비사성에 거점을 확보한 뒤 해로로 북진하여 건안성을 포위했고, 이로서 唐의 본영으로 해상 수송이 가능해졌다. 라고 하였다.

49)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9月 **壬申(7일) "初……**世勣遂攻安市.……攻久不下. 高延壽・高惠真請於上曰 : ……烏骨城耨薩老耄, 不能堅守, 移兵臨之, 朝至夕克. 其餘當道小城, 必望風奔潰. 然後收其資糧, 鼓行而前, 平壤必不守矣. 群臣亦言: 張亮兵在沙城, 召之信宿可至, 乘高麗凶懼, 並力拔烏骨城, 渡鴨綠水, 直取平壤, 在此舉矣." 上將從之, 獨長孫無忌以爲 : 天子親征, 異於諸將, 不可乘危徼幸. 今建安・新城之虜, 眾猶十萬, 若向烏骨, 皆躡吾後, 不如先破安市, 取建安, 然後長驅而進, 此萬全之策也. 上乃止."

50)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6月 丙辰(20일), "至安市城, 進兵攻之."

고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張亮이 建安城 앞에서 卑沙城으로 돌아간 시점은 645년 7월 22일로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가 되겠다. ②의 시점은 高延壽와 高惠眞이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나 鴻臚卿과 司農卿에 임명된 7월 22일[53] 직후일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나온 시점은 張亮이 建安城에서 卑沙城으로 회군을 완료한 시기와 겹치며, 대략 7월에서 8월로 접어드는 시기로 駐蹕山에서 대승을 거둔 지 이미 30일 이상이 지났다. 唐將들 사이에 安市城을 건너뛰고 평양으로 직공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②에서 諸將들은 2일 이내에 동원이 가능한 卑沙城의 張亮 수군을 이용하여 烏骨城을 깨고 鴨綠江을 渡河하여 평양으로 가자고 했다.

즉 卑沙城에서 출발한 張亮의 船團이 鴨綠江에 나타나면 大行城·泊灼城의 고구려 군대가 긴장하여 烏骨城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때 唐軍이 남하하여 烏骨城을 함락시키고 鴨綠으로 진군하여 張亮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하였다.

하지만 長孫無忌가 반대하였다. 建安城·新城의 고구려군 10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평양으로 가면 뒤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구려가 駐蹕山 패전 후 대열을 재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금시간대는 이미 지나갔다. 황제가 長孫無忌의 결정에 따랐고, 여기서 張亮 수군의 역할은 축소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唐육군 수뇌부가 왜 평양 직공을 논의했다는 말인가. 그들 눈앞에 있는 安市城을 함락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고구려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었다. 결국 평양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황제는 겨울에 접어든 9월 18일 고구려에서 철수를 결정했다.[54]

Ⅳ. 張文幹 船團의 침몰과 平壤進攻 보류

646년 3월 7일 唐太宗이 고구려에서 돌아온 시점이었다. 황제가 李靖에게 어떻게 작은 나라 고구려에게 패배했는지 질문했다.

> (646년) 3월 己巳(7일)에 車駕가가 京師로 돌아왔다. 황상이 李靖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하의 무리를 가지고도 작은 고구려(小夷)에 곤란을 받았으니 왜 그런가?"李靖이 답하기를 "그것은 道宗이 풀어줄 것입니다." 황상이 江夏王 道宗에게 물었더니, (안시성 앞) 駐蹕에 있을 때 텅 빈틈을 타서 平壤을 빼앗아야 한다고 하였던 것을 갖추어 진술하였다. 황상이 슬퍼하며 말하였다. 당시에는 총총 망망하여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55]

51) 『冊府元龜』 卷989, 外臣部·備御第2 "十九年七月, 帝征遼東於安市城, 使李勣攻安市, 時從行文武亦以爲摧高延壽拾餘萬軍, 高麗膽碎乘破竹之勢. **今乃其時張亮水軍在卑涉城,** 召之信宿相會, 直取烏骨, 渡鴨淥水."

52)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7月 戊子(22일) "……張亮軍過建安城下"

53)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년(645) 7월 戊子(22일) "以高延壽爲鴻臚卿, 高惠真爲司農卿."

54)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9月 癸未**(7일).**

55) 『資治通鑑』 卷198, 貞觀 20年(646) 3月 己巳(7일) "車駕還京師. 上謂李靖曰: 吾以天下之眾困於小夷, 何也? 靖曰: 此道宗所

李靖이 (황제의 4촌 동생인) 江夏王 道宗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했다. 道宗은 자신이 安市城 앞에서 텅 빈틈을 타서 평양으로 직공 할 것을 황제에게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 (645년 6월 21일) 江夏王 道宗이 말하였다. 고구려는 온 나라를 다 기울여서 王師(당태종의 군대)를 막고 있으니 평양의 수비는 반드시 약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신에게 정예 병사 5천 명을 빌려 주어서 그들의 뿌리가 되는 본거지를 뒤집어엎게 한다면 數十萬의 무리라도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이 호응하지 않았다.[56]

645년 6월 21일로 시간을 거슬러가 보자. 駐蹕山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고구려 장군 高延壽 등이 安市城 앞으로 15만에 달하는 병력을 이끌고 왔다. 이때 고구려 대군이 安市城 앞에 집중되어 평양의 수비가 약화 된 것이 확실했다. 道宗이 말하는 텅 빈틈이 그것이었다. 그가 5천을 이끌고 평양으로 가고자 했으나 황제가 답하지 않았다. 이때는 大會戰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황제의 결정을 수긍하지 못할 것도 없다.[57]

> 高麗에서 온 나라가 매우 놀랐고, 後黃城과 銀城은 모두 스스로 성을 포기하고 달아나니 수 백리에 다시 사람과 연기가 나지 않았다.[58]

645년 6월 23일 駐蹕山 전투에 참배한 직후 고구려는 공황 상태에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타이밍이었다. 전쟁에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구려의 주력군이 붕궤되어 흩어진 이때 그들에게 재정비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황제는 부하들을 시켜 평양으로 직공을 하게 해야 했다. 이 결정적인 시간에 황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복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의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道宗의 진술에 대해 황제는 슬픈(悵然) 목소리로 답변했다. 총총 망망하여 나는 그때 너의 평양 직공 제안을 거절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황제의 답변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Fitzgerald는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적지 않은 역사학자들이 황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여기고 있으며, 황제가 道宗의 계획을 따랐다면 전쟁은 중국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戰後 모든 것이 결판이 난 상태에서 道宗의 지혜가 다시 조명 받았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전쟁 당시

解. 上顧問江夏王道宗, 具陳在駐驆時乘虛取平壤之言. 上悵然曰: 當時匆匆, 吾不憶也."

56)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6月 丁巳(21일) "江夏王道宗曰: 高麗傾國以拒王師, 平壤之守必弱, 願假臣精卒五千, 覆其本根, 則數十萬之眾可不戰而降. 上不應."

57) C. P. Fitzgerald, *'op. cit.'*, 1933, p.195 참조.

58)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6月 己未(23일) "延壽・惠真帥其眾三萬六千八百人請降, 入軍門, 膝行而前, 拜伏請命. 上語之曰 : 東夷少年, 跳梁海曲, 至於摧堅決勝, 故當不及老人, 自今複敢與天子戰乎？ 皆伏地不能對. 上簡耨薩已下酋長三千五百人, 授以戎秩, 遷之內地, 餘皆縱之, 使還平壤 : 皆雙舉手以顙頓地, 歡呼聞數十裏外. 收靺鞨三千三百人, 悉坑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 鐵甲萬領, 他器械稱是. 高麗舉國大駭, 後黃城・銀城皆自拔遁去, 數百裏無複人煙."

(645년 6월 21일~23일) 황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평양 직공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59]

道宗과 대화 후 황제는 실패한 전쟁 과정을 복기(復棋)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貞觀 20년 3월 己巳(7일)……陝(섬서성) 사람 상덕현이 형부상서 張亮은 양자 500명을 기르고, 술사 公孫常과 함께 말하였는데, 이름이 도참에 맞아떨어진다고 하였으며, 또 술사 程公穎에게 물어 말하기를, 나의 어깨에 용의 비늘이 일어나고 있으니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데 좋겠는가? 라고 물었다고 고발하였다. 황상은 마주 등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하였지만 張亮은 말로 자복하지 않았다. 황상이 말하였다. 張亮이 양자를 500명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길러서 무엇 하려고 하는가? 바로 반역하려고 할 뿐일 것이다. 百官들에게 그의 옥사를 논의하도록 명령하였더니 (백관)모두가 張亮이 반역하는 것이니 마땅히 주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만 장작소장 李道裕가 말하였다. 張亮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형태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아니하였으니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황상은 長孫無忌와 房玄齡을 파견하여 감옥에 가서 張亮과 결별하게 하며 말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니 공과 함께 이를 같이 하는 것이오. 공은 스스로 근신 하지 아니하여 흉악한 사람과 왕래하였다가 법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지금 장차 어찌하겠는가? 공은 잘 가시오. 기축일(27일) 張亮과 程公穎은 함께 서쪽에 있는 저자에서 참수되었고, 그의 집안도 적몰 되었다. 과거에 李道裕가 張亮의 옥사를 논의할 적에 말하기를, 반란의 모습이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합당한 것이었다. 짐이 비록 쫓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를 후회한다."[60]

646년 3월 27일에 황제가 前수군 총사령관 張亮을 반역죄로 주살했다. 뭔가의 불안감이 唐 조정을 덮고 있었던 시기였다. 고구려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황제의 심리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에게 병이 찾아왔고,[61]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62]

당시 세계 최강의 唐軍은 황제의 사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백성의 군대라는 개념은 희박했다. 그 군대가 고구려에서 밀려났을 때 백성보다 親政을 한 황제의 긍지가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 권위가 떨어진 황제는 뭔가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張亮에 대한 모반의 밀고가 들어왔다. 황제는 그에게 죽음을 내렸다.

그렇지만 단 1명을 제외하고 신하들 모두가 처형에 찬성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필자는 여기서 그 이유(why)보다 그 시점(when: 646년 3월)이 중요하다고 본다. 황제와 道宗이 대화를 나눈 20일

---

59) C. P. Fitzgerald, '*op. cit.*', 1933, p.195.
노태돈, 앞의 책, 2009, 95쪽 "이도종의 제안이 너무나 모험적이라 당태종은 거부하였다."라고 했다.

60) 『資治通鑑』 卷198, 貞觀 20年(646) 3月 己巳(7일) "陝人, 常德玄告, 刑部尙書張亮, 養假子五百人, 與術士公孫常語云, 名應圖讖, 又問術士程公穎曰 : 吾臂有龍鱗起, 欲擧大事可乎, 上命馬周等按其事, 亮辭不服. 上曰: 亮有假子五百人, 養此輩何爲, 正欲反耳. 命百官議其獄, 皆言亮反當誅. 獨將作小匠, 李道裕言, 亮反形未具, 罪不當死. 上遣長孫無忌房玄齡, 就獄與亮訣曰 : 法者天下之平 與公共之. 公自不謹, 與凶人往還, 陷入於法, 今將奈何, 公好去. 己丑, 亮與公穎俱斬西市, 籍沒其家. 往者, 李道裕議張亮獄云, 反形未具, 此言當矣, 朕雖不從, 至今悔之."

61)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12月 辛醜 "上病癰, 禦步輦而行. 戊申, 至**並州,** 太子爲上吮癰, 扶輦步從者數日."

62) 645년 12月 26일(庚申)에 定州에서 황태자를 보필하던 侍中 劉洎를 의심하여 처형했다.
『新唐書』 卷2, 太宗本紀 貞觀 19年[645]) 12月 庚申 "**殺劉洎.**"

후에 수군의 책임자였던 張亮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었다. 수군이 전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63]

앞서 645년 11월 19일에 張亮의 부하인 水軍總管 張文幹이 죽음을 받았다.[64] 황제가 고구려에서 퇴각하는 도중에 집행된 최초의 처형이었다. 그가 전쟁에서 뭔가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던 것으로 보인다.

> 황제가 洛陽에 거동하여 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常何·左難當을 副總管으로, 冉人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을 總管으로 삼아서, 江·吳·京·洛에서 모은 군사 4만과 吳의 戰船 5백 척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平壤으로 진격하게 하였다.[65]

앞서 644년 11월 洛陽에서 황제가 고구려 원정을 위한 수군 총관들을 임명했다. 張亮은 수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平壤道行軍大總管이었다. 그의 부장들 2명(常何·左難當)을 제외하고 總管에 임명된 인물은 **張文幹**을 비롯하여 冉人德·劉英行·龐孝泰·程名振이다.[66] 수군의 최종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이보다 앞서 641년 8월에 황제가 다음과 같은 평양 직공 전략안을 내놓은 바 있다.

> 황상이 말하였다. 高麗는 본래 4郡의 땅일 뿐이다. 내가(吾) (친히: 필자) 군사 數萬 명을 이끌고 遼東을 공격하면 (고구려의) 다른 여러 城들이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이다. 이때 별도로 水軍을 (산동반도) 東萊에서 출발시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들어간다면 아주 쉬울 것이다.[67]

唐수군을 중심으로 한 평양 공략 작전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68] 다시 말하지만 645년 6월 21일~23일 駐蹕山 전투에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병력을 중심으로 전국각지에서 차출한 병력과 휘하 여러 말갈부족 병력을 합쳐 편성한 부대로서, 고구려 역사상 최대의 병력(15만)을 동원했다.[69] 그는 황제만 잡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장에 직접 나온 황제 그 자신이 고구려 사람들을 벌 떼처럼 몰려들게 하는 미끼였다.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親征을 단행한 황제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張文幹 外 여러 수군 총관들이 卑沙城에서 평양으로 출항한 시점[70]을 황제의 전략을 근거로 좁혀 보자.

---

63) 이용희, 「唐 太宗 시기 行軍의 편성과 운용」『東洋史學會 秋季 學術發表要地』魏晉隋唐史分科, 2006년 10월, 69쪽의 註13에서 張亮의 처형 이유를 그의 수군 활동 실패에서 찾았다.

64) 『新唐書』 卷2, 太宗本紀 貞觀 19年[645] 11月 癸未 "平壤道行軍總管張文幹有罪 伏誅."

65) 『新唐書』 卷220, 高麗傳 "帝幸洛陽, 乃以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 常何左難當副之, 冉仁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爲總管, 帥江·吳·京·洛 募兵凡四萬, 吳艘五百, 泛海趨平壤."

66) 5명의 총관 가운데 유일하게 張文幹만 처형되었다. 程名振은 卑沙城을 함락시키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冊府元龜』 卷117, 帝王部·親征第2) 龐孝泰는 661년 평양성 전투에서 아들 13명과 함께 비장한 최후를 맞이했다(『資治通鑑』 卷200, 龍朔 2年(662) **戊寅(18일)**). 冉人德·劉英行에 관한 기록은 없다. 2人은 張文幹과 같은 선단에 배속되었다가 水葬되었을 수도 있다.

67) 『資治通鑑』 卷196, 貞觀 15年(641) 8月 己亥(10일) "……上曰 : 高麗本四郡地耳, 吾發卒數萬攻遼東, 彼必傾國救之. 別遣舟師出東萊, 自海道趨平壤, 水陸合勢, 取之不難."

68)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3, 339쪽.
이민수, 앞의 논문, 2021, 158쪽.

69) 노태돈, 앞의 책, 2009, 91쪽.

5월 17일에 遼東城, 6월 1일에 白巖城이 황제에 의해 함락되면서 고구려의 대군이 安市城 방면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고구려의 후방은 전력 공백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 시기를 맞추어 張文幹의 함대가 출전했을 것이다.

그때 張文幹의 수군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화 된 평양성을 공격하거나, 늦어도 황제가 駐蹕山에서 고구려 주력군 15만을 대파한 시점(6월 23일)에는 대동강에 거점을 구축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해 唐 수군이 대동강 기슭에 상륙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캔자스 주립대 David A. Graff 교수의 주장이 주목된다. 그에 의하면 바다를 가로질러 고구려를 공격했던 唐수군이 5월 1일에 卑沙城을 점령하고 고구려 해안 여러 곳에 위협을 가하기는 했지만 唐육군과 효과적인 공조를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唐수군이) 평양 직공에 실패했다(Failed)고 한다.[71]

아래의 기록에서 唐수군이 평양으로 향했던 흔적이 보인다.

> "張文幹은 行撫州刺史, 平壤道行軍摠管이다. 貞觀 19년(645)에 (태종이) 요동(고구려)을 정벌하러 갔다가 회군하여 易州 부근을 지났는데, 張文幹이 바다를 건너면서 배를 많이 전복시켰기에, 詔書를 내려 지체하면서 도착하지 못한 것을 핍박하고 참수하였다."[72]

平壤道行軍摠管 張文幹이 이끌던 선단이 항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면서 많은 배가 전복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목적지 평양에 도착하지 못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張文幹은 죄의 값을 받았다.[73] 결정적인 순간에 배들이 침몰하면서 황제의 이후 계획이 어그러졌다.

駐蹕山 전투 승리 직후에 황제가 곧장 평양으로 군대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은 張文幹 수군의 침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 사건은 고구려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1개월 이상)을 벌어주었다. 駐蹕山 싸움에서 고구려 병력 가운데 많은 수(15만의 2/3 가량)가 살아남았고,[74] 고구려는 흩어진 그들을 모아 대열을 재정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7월 말—8월 초에 新城·建安城 주둔 고구려군 10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75]

---

70) 614년 隋나라의 수군 사령관 來護兒가 卑沙城을 함락시키고 평양으로 직공 하려고 하자 고구려가 크게 두려워(震恐)했다고 한다. 『冊府元龜』 卷405, 將帥部·識略第4 "來護兒爲左翊衛大將軍 遼東之役率師渡河至卑奢城 高麗舉國來戰護兒大破之 斬首千餘級 將趨平壤高麗震恐……"
松井等,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 『滿洲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수·당 두 왕조의 고구려 원정의 지리」(이정빈外譯), 『韓國古代史探究』 14, 서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281쪽.

71) David A. Graff, *Medieval Chinese Warfare*, London·New York: Routledge, 2002, p.198.

72) 『冊府元龜』 卷445, 將師部 逗撓 "張文幹 行撫州刺史·平壤道行軍總管. 貞觀十九年 征遼 廻次易州 文幹以渡海多覆舟舡 詔迫逗遛不赴 斬之."

73) 이상 張亮과 張文幹의 처형과 후자의 함대 침몰에 대해서는 안희상, 「645년 고·당 전쟁과 고구려의 승리 원인」, 동국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22, 55~60쪽 참고.

74)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年(645) 6月 조에 麗軍 15만 중 2만 전사, 36,800명 항복으로 나온다.

75) 卑沙城 점령 이후 唐수군은 2개의 行軍으로 분리되었다. 『舊唐書』 張亮傳을 보면 그는 滄海道行軍大總管이고, 張文幹은 平壤道行軍總管이다. 전자는 建安城 앞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후자는 평양으로 향할 터였다. 하지만 후자가 전복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병참기지 卑沙城의 기능 유지가 필요했다. 7월말 張亮이 卑沙城으로 회군하면서 建安城의 포위가 풀렸고, 麗軍이 그곳에 집결할 수 있었다.

수군이 대동강 보급로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이 평양으로 진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과거에 뼈저린 참사가 있었다. 612년 6월 대동강에 상륙한 隋수군 4만이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고구려군의 매복에 걸려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되면서 평양까지 육로로 남진한 隋육군 30만과 연결되지 못했고,[76] 수군의 보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육군이 평양 앞에서 遼河까지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멸했다. 고구려에서 거의 34만이 사라진 그 사건은 隋가 자체 붕괴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앙이었다. 당시 14살(598년생)이었던 李世民(당태종)이 그 참사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Fitzgerald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45년 6월 安市城 앞에 고구려 대군이 몰려들자 李道宗은 太宗에게 그 틈을 노려 평양으로 직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道宗은 남하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군대와 마주칠 실질적인 가능성이 크게 없으며, 해안에 상륙한 唐수군과 합류하면 평양을 접수하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612년 隋煬帝의 군대가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진군하다 실패하고 흩어져 철수하면서 전멸한 기억을 하고 있던 太宗은 道宗의 제안을 거절했다.[77]

645년 唐太宗은 고구려를 침공하여 遼東城 · 白巖城 · 卑沙城 · 蓋牟城 · 駐蹕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수군의 실패로 唐軍은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고, 다른 어려움이 겹쳐[78] 고구려에서 철수했다. 수군 총사령관 張亮의 처형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Ⅴ. 맺음말

唐太宗의 전쟁 목적은 평양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있었다. 하지만 唐軍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지금까지 安市城에 가로막혀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았지만, 필자는 그 해답을 唐수군에서 찾았다.

---

76) 『資治通鑑』 卷181, 大業 8년(612) 6월 己未(12일) "右翊衛大將軍來護兒帥江 · 淮水軍, 舳艫數百裏, 浮海先進, 入自浿水, 去平壤六十裏, 與高麗相遇, 進擊, 大破之. 護兒欲乘勝趣其城, 副總管周法尚止之, 請俟諸軍至俱進. 護兒不聽, 簡精甲四萬, 直造城下. 高麗伏兵於羅郭內空寺中, 出兵與護兒戰而偽敗, 護兒逐之入城, 縱兵俘掠, 無複部伍. 伏兵發, 護兒大敗, 僅而獲免, 士卒還者不過數千人. 高麗追至船所, 周法尚整陳待之, 高麗乃退. 護兒引兵還屯海浦, 不敢複留應接諸軍."
이정빈, 『고구려-수 전쟁』, 주류성, 2018, 201~209쪽.

77) C. P. Fitzgerald, '*op. cit.*', 1933, pp.194-195.

78) 645년 8월 10일 薛延陀 기병 10만이 長安의 북방 오르도스를 공격한 소식이 唐太宗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唐軍의 평양직공은 더욱 어려워졌다. 『新唐書』 卷123, 執失思力傳을 보면, "執失思力, 突厥酋長也.……及討遼東, 詔思力屯金山道, 領突厥扞薛延陀. 延陀兵十萬寇河南, 思力示羸, 不與確, 賊深入至夏州, 乃整陣擊敗之, 追躡六百里. 會毘伽可汗死, 耀兵磧北而歸."라고 하여 唐太宗이 고구려를 침공하자 薛延陀의 10만 기병이 河南(오르도스)을 침공하여 **夏州**까지 남하했다. 執失思力이 반격하여 6백리를 추격했지만 (眞珠)毗伽可汗(『舊唐書』 卷199, 鐵勒傳 "時太宗方圖利, 遣遊擊將軍喬師望從間道齎冊書拜**夷男爲眞珠毗伽可汗**")이 죽어 磧北에서 시위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薛延陀의 침공이 먼저이고 眞珠毘伽可汗의 죽음이 나중이다.** 『資治通鑑』 卷198, 貞觀 19년(645) 8월 10일 조에서 "考異曰 實錄上謂近臣曰 以我量之延陀其死矣……"라고 하여 唐太宗이 그날 자신이 延拖(眞珠毘伽可汗)의 죽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했다. 당시 唐太宗이 머물던 安市城 앞과 薛延陀의 본거지인 鬱督軍山(Ütükän yïš) 사이의 연락거리를 고려할 때 眞珠毘伽可汗의 죽음은 8월 초로 보이며, 7월말에 薛延陀가 唐을 공격한 것이 확실하다. 徐榮教, 「연개소문의 對薛延陀 공작과 唐太宗의 安市城 撤軍-『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8 · 12월 조 『考異』의 實錄자료와 관련하여-」 『東北亞歷史論叢』 44, 동북아역사재단, 2014, 249~283쪽.

644년 고구려 침공을 결정한 황제는 사람들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강과 바다를 통해 고구려로 보급품을 수송하려고 했다. 645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幽州에서 (營州의) 遼河 사이의 2천리 구간을 행군해야 하는 황제와 휘하의 6만 六軍은 해안 길을 선택했다. 河北에서 수취된 식량들을 선적한 600척의 수군 소속 배들이 해안을 따라 전진하면서 황제의 군대에 보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황제의 행군로는 幽州→北平→山海關→營州의 해안길→遼澤→遼東城으로 보인다.

645년 5월 2일 張亮의 亞將인 程名振이 卑沙城을 함락시켰다. 이후 卑沙城은 唐軍의 중간군수물류기지로 활용되었다. 山東 萊州에 집적된 糧米·武器가 卑沙城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고구려의 대부분 지역(건안성·요하·평양·압록강)으로 수송이 가능했다.

보급품은 물론이고 병력도 그러했다. 5월 수군 사령관 張亮은 卑沙城에서 建安城으로 이동했다. 직전인 4월에 建安城을 공격했던 張儉과 그의 군대가 5월에 遼東城의 南面 공격에 동원되었다. 卑沙城을 함락시킨 張亮과 그의 수군이 張儉軍의 빈자리를 채웠다. 수군은 軍資 운반뿐만 아니라 육군을 보조하기도 했다.

한편『資治通鑑』641년 8월 10일 기록 등에 황제의 고구려 침공전략이 보인다. 자신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遼東을 공격하면 고구려의 다른 여러 城이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이고(吾發卒數萬攻遼東, 彼必傾國救之), 고구려의 주력이 遼東에 집중된 이때 唐수군이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직공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황제 자신은 고구려 대군을 빨아들이는 미끼였다.

645년 6월 황제만 잡는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연개소문은 駐蹕山 전투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병력을 중심으로 전국각지에서 차출한 15만 대군을 투입했다. 고구려 역사상 최대의 병력 동원이었다. 황제가 4년 전에 예상한 그대로였다. 대부분의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황제가 굳이 親征을 감행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6월 23일 황제가 고구려의 대군을 유인하여 궤멸시켰다.

고구려 주력이 駐蹕山 부근으로 몰려가 평양이 텅 빈 시점에 唐수군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 수도를 공격하거나, 적어도 황제가 고구려 주력군을 대파한 시점(23일)에는 대동강에 거점을 구축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平壤道行軍摠管 張文幹 등이 이끄는 唐船團이 평양으로 향했지만 많은 수가 침몰했다. 張文幹과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總管 冉人德·劉英行은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駐蹕山 전투 직후 고구려가 공황에 빠진 바로 그때 황제는 평양으로 진군하라는 명을 내리지 못했다. 평양부근에서 보급을 해줄 함대의 전복으로 황제의 향후 작전계획이 어그러졌던 것이다.

645년 5월~6월 唐太宗은 고구려에서 遼東城·白巖城·卑沙城·蓋牟城을 함락시켰고, 무엇보다 駐蹕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때 평양으로 향하던 唐수군이 전복되면서, 전쟁 자체가 실패했다. 645년 11월에 황제는 임무 수행에 실패한 張文幹을 주살했고, 이듬해 3월에 張亮을 참수했다.

〈參考文獻〉

『冊府元龜』『舊唐書』『新唐書』『資治通鑑』『讀史方輿紀要』『大清一統志』『三國史記』
『成宗實錄』『宣祖實錄』

金庠基,「淵蓋蘇文」,『朝鮮名人傳』2,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노태돈,『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마르틴 반 크레펠트(저), 우보형(역),『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文一平,「朝鮮人과 國際觀」,『湖岩全集』1,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徐榮教,「연개소문의 對辟延陀 공작과 唐太宗의 安市城 撤軍-『資治通鑑』권198, 貞觀 19년 8·12월 조『考異』의 實錄자료와 관련하여-」,『東北亞歷史論叢』44, 동북아역사재단, 2014.
松井等,「수 당 두 왕조의 고구려 원정의 지리」(이정빈外 譯),『韓國古代史探究』1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신채호,『朝鮮上古史』, 종로서원, 1948.
안희상,「645년 고·당 전쟁과 고구려의 승리 원인」, 동국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22.
윤명철,『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3.
이민수,「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韓國古代史探究』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李成制,「高句麗와 遼西橫斷路」,『韓國史 硏究』178, 한국사연구회, 2017.
이용희,「唐 太宗 시기 行軍의 편성과 운용」,『東洋史學會 秋季 學術發表會 發表要地』, 2006.
이정빈,「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 변경지대와 그 변화-요서 고구려의 邏와 수의 鎭·戍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이정빈,『고구려-수 전쟁』, 주류성, 2018.
이정빈,「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무엇을 바꾸었나?」,『역사비평』126, 역사비평사, 2019.
허태용,「圓嶠 李匡師의 중화의식과 역사인식 一考-「東國樂府」의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인물사연구』10, 한국인물사연구회, 2008.

松井等,「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滿洲歷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王綿厚·李健才,『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1990.

C. P. Fitzgerald, *Son of Heaven-A Biography of Li Shih-Min, founder of the T'ang Dynasty*-,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33.
David A. Graff, *Medieval Chinese Warfare*, London·New York: Routledge, 2002.

Martin van Creveld, *Supplying War:* Logistics from Wallenstein to Pat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이 논문은 2022년 8월 30일에 투고되어,
2022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Emperor Taizong's Failure to Invade Goguryeo and the Navy

Seo, YoungKyo*

In 645, The Tang China invaded Goguryeo. Only when they capture Pyongyang, the capital of Goguryeo, will they achieve the purpose of the war. The Tang China's military could not go straight to Pyongyang immediately after defeating 150,000 Goguryeo troops at Mount Jupil. I found the cause in the failure of the Tang navy.

The Tang emperor transported supplies to Goguryeo through rivers and seas to save people's labor. The distance between Beijing and the Yoha River, the border with Goguryeo, was 1,200 miles. The emperor's army 60,000 who had to march there chose a coastal route. Ships carrying food advanced along the coast and supplied to the emperor's army.

On 2 May 645, the Tang navy captured Bisha Castle. Later, that Fortress became an intermediate military logistics base for the Tang army in Goguryeo. Supplies carried from China's Shandong Peninsula were transferred to Bisha Castle, where transportation to all parts of Goguryeo was possible. So did the transport of troops. In May, Admiral Zhang Liang, commander of the Navy, moved from Bisha Castle to Geonan Castle, where he fought. The vacancy had to be filled because Zhang Gum's army moved from Geonan Castle to Liaotung Castle in May. The Navy also transported supplies and assisted the Army.

Meanwhile, shortly after the Chinese navy took over Bisha Castle, Tang's navy, led by Zhang Wenjian, sailed to Pyongyang. However, a large number of ships were sunk. It was prime time when the emperor defeated 150,000 Goguryeo's main forces at the Battle of Mount Jupil on June 23. Zhang Wenjian had to land near Pyongyang and establish a base, but he failed to do so.

At that time, when Goguryeo was in panic, one general urged the emperor to attack Pyongyang directly, but Taizong refused to accept it. With the Chinese navy not securing a waterway on the Daedong River, the march to Pyongyang was very dangerous.

In 645, the emperor captured more than five fortresses in Goguryeo and won. However, as Chinese ships headed for Pyongyang sank, the emperor's army missed the golden time to march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Jungwon University

to Pyongyang, and the war itself failed. This is also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naval commander Zhang Liang in March 646.

[Keywords] Emperor Taizong, Jupil Mount, The Tang navy, Pisha Castle, Zhang Liang, Zhang Wenjian